

# 한인신문



한인신문 FACEBOOK QR코드

취재/광고: +7 707 120 1234

운영/배송: +7 747 674 5800

haninshinmun@hotmail.com

2022년 1월 17일

NO. 4[1135]

Ханин Синмун • Еженедельная газета

17 января 2022г.

## 주요연락처

대사관 (비자, 여권, 공증) +7(717)257-2100  
(사건, 사고) +7(705)757-9922

알마티 총영사관 (비자, 여권, 공증) +7(727)291-0490  
(사건, 사고) +7(777)705-6634

한인회사무처 +7(747)674-5800  
지상사협회 +7(701)880-8600  
중소기업연합 +7(705)900-8662  
민주평통 +7(701)755-9759

구급차 03, 103

범죄/화재신고

(알마티) 112

(아스타나) 101

가스/전기/상하수도 104, 109

알마티공항 +7 727 270 3333

아스타나공항 +7(717)270-2999

아스타나 문화원 +7(717)290-1113~5

한국석유공사

(아스타나) +7(717)279-0429

(알마티) +7(727)311-0378~9

한국교육원 +7(727)392-9120,3

코트라(알마티) +7(727)222-323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727)274-2500

보건산업진흥원 +7(727)228-2301

관광공사(알마티) +7(727)344-0972

알마티토요한글학교 +7(775)114-5460

알마티 공항에서

도움 필요할 때 +7(701)731-4802



## 항공편 안내

### • 아시아나 항공

매주 목요일(알마티 출발 기준)

\* 알마티 출발은 오전 09:25 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에어 아스타나

매주 월, 수(주2회)

\*수요일 항공편은 7월 15일부터 운항

## 카자흐스탄 비상사태 안정화 국면이지만 긴장 늦추지 마시길 당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 한인회장 강병구입니다.

절망적이고 암흑같았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든 교민이 비상사태와 관련해 안전 공지를 준수하고, 실시간 주변상황을 공유하고 격려한 덕분에 급박했던 시간을 무사히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르지만, 교민 사업장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현지 대형 쇼핑몰을 비롯해 관공서 등 많은 부분의 일상이 비상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민회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교민 사업장에 폭도가 들어와 집기와 시설을 파손시킨 사례가 접수되었고,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비상사태 연락망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의사 소통 수단인 메신저를 이용할 수 없고, 전화도 일부 지역에서는 연결되지 않아 전체 교민에게 긴급한 소식과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한민회에서는 이번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모든 교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교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공지를 보시는 교민께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알려져 비상사태 연락망 구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정보를 한민회로 보내 정보가 공

유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신 교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자흐스탄 한인회는 카자흐스탄 교민 사회에서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이 되는 구심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몇몇 사람들만의 리그가 아닌, 카자흐스탄 구석 구석에 계신 교민의 소리를 듣고, 소식을 전달하고,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연락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이번 비상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것을 기억하시고, 19일까지는 통금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비상사태와 관련해 어려움을 당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카자흐스탄 한인회 사무처 7 (747) 674-58-00(강우환 실장)에게 연

락하시기 바랍니다. 카톡과 왓츠앱에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통화가 되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 놓으시면 확인될 때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속에서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시고, 집회 장소나 해당 주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되는 상황에서는 카톡 채널에서 '카자흐스탄 한인회'를 검색해 채널에 추가하시면 한민회에서 모아지는 각종 긴급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명의 교민도 인명피해 없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교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 해결에 힘써주신 알마티총영사관과 아시아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카자흐스탄 한인회장 강병구



**SAMSUNG**

**Galaxy Z Fold3 | Flip3 5G**

Samsung  
Hey there!

# 알마티 공항에서 안전 규정 강화해

알마티 공항 공공질서 안보 정책이 채택되었다고 Zakon.kz에서 전했다.

“알마티 공항에서 항공 운항을 재개함으로 인해 이용 승객이 늘었습니다. 교통경찰은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정했습니다. 특히 범위반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라고 탈가트 탈리포프 알마티 공항 경찰 서장이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공항 경찰 보안대는 강화된 체재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공공질서와 안전, 화물 보호 등이 보장되고 수색 중인 인물들을 확인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첫번째 검색대에서 금지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승객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경비대 직원과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

대용 금속탐지기와 보안검색, 승객 검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불법 물품 운송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터미널 입구는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만 열어주고 있다. 승객과 화물 검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승객 여러분께서는 서류를 확인할 때 경찰들의 행동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지 품목의 보관 및 운송은 행정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라고 탈가트 탈리포프 서장이 설명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과 무국적자들의 카자흐스탄 이민법 준수에 관한 감독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내의 위생 역학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발표되고 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항 방문이나 다른 모든 공공장소에서 개인 보호 위생품을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탈가트 탈리포프 서장이 덧붙였다.

/자론

## 카작 국립은행, 카자흐스탄에서 해외로 불법자금 인출 방지 위해 감독 강화

금융모니터링 강화의 대상이 되는 거래 목록이 승인되고 행동 알고리즘이 채택되었다고 예르볼라트 도사예프 국립은행 총장이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으며 Zakon.kz 통신원이 보도했다.

“국립은행은 금융모니터링 기관과 금융시장 개발 및 감독청과 함께 1월 10일 국외 불법자금 유출 감독 강화에 관한 공동명령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명령서에 따라 거래 진행 신청서에 관한 행동강령 알고리즘과 금융모

니터링 강화 대상이 되는 거래 목록을 승인했습니다.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 거래는 즉시 중단이 됩니다.”라고 예르볼라트 도사예프 국립은행 청장은 설명했다.

국립은행 청장은 최고의 국제적 사례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KYC 고객확인절차 원리를 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는 자본 흐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저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포함해 성실하게 대외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해외 송금 진행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예르볼라트 도사예프 총장은 설명했다.

1월 11일 상원의회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가짜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 등으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론

### [한인회 공지사항]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행동 요령 참고하세요.

- 현장을 훼손/청소하지 마시고 보존하세요.
-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자세히 찍으세요.
- 그 외 피해 규모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근거가 있다면 꼭 보존하세요(예를 들어 파손된 물품의 구매 내역, 영수증 등)

이후 한인회로 연락 주시면 알마티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의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락처: 8 747 674 5800)

제 13대 한인회장 강병구

www.rakhat.kz  
rakhat@rakhat.kz

«LOTTE RAKHAT» JSC, Kazakhstan,  
Almaty, 2a, Zenkov str.



LIFE IS TASTIER WITH US!



# 카자흐스탄, 해외에서 입국시 규정 변경



2022년 1월 15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규정을 변경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부서간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COVID-19 PCR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 때 증명서는 검사 이후

카자흐스탄 입국하기 전까지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만 유효하다.

증명서는 영어, 러시아어, 또는 카자어로 발급받을 수 있다. 5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된

다.

COVID-19 PCR 음성결과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카자흐스탄 국민은 물론,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출발지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자론

## 카자흐스탄, 인터넷 모니터링

카자흐스탄 정보사회개발부 장관인 아스카르 우마로프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고 카즈인폼(Kazinform)이 보도했다.

“정보사회개발부는 앞으로 시민들의 급진화와 파괴적 목적을 위해 종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적 극단주의와의 싸움을 이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방 행정부와 협력하여 급진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위협 또는 영향을 받는 시민 및 집단에게 이에 따른 예방 조치와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고 아스카르 우마로프 장관은 정부 회의에서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급진적 종교 이데올로기의 선전을 막기 위해 정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다.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종교적 견해의 추종자들을 전통적인 이슬람의 본질로 되돌리기 위해 정보사회개발부는 특별법 집행 기관 및 지역 집행 기관과 함께 재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장관은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 이행

의 일환으로 청년, 실업자, 소외 계층, 자영업자, 신자 등 가장 취약한 시민들 대상으로 정보 및 설명 작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급진화를 방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종교 콘텐츠 식별을 위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들 사이의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종교적 극단주의 예방 및 반대 선전과 급진적 그룹 및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의 카자흐스탄 가입자들에 대한 표적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산’ 특별 작전



의 일환으로 테러 활동 지역에서 돌아온 여성들을 포함하여 파괴적인 종교 운동 추종자들과의 추가 재할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우마로프 장관은 결론지었다.

/카즈인폼

## 한인신문 후원사 목록

삼성	1면
롯데라트	2면
아시아나항공	3면
신한은행	4면
AK Group	5면
한국K-방역 시스템	7면
유니온파트너스	7면
UNION DENTAL CLINIC	7면
KYL LOGISTICS	8면
루벤스 여행사	8면
한국 개나리 벽지	9면
CNK 알마티 로지스틱스	11면
골든투어 카자흐스탄	13면
이모네 식당	14면
두레	14면
세븐마트	14면
다사랑/다사랑 마트	14면
늘푸른건강원	14면
GS Oil	14면
NAVIEN 보일러	14면
한솔한의원	14면
CIS Group	14면
중앙아시아히브교회	14면
알마티 한인교회	14면
방울토마토 미용실	15면
알마티 좋은 부동산	15면
Hannah E-Children Center	15면
명가식당/마트/게스트 하우스	16면
애플렌터카	16면
마시소강남카페	16면
태웅로지스	16면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한인 신문물  
 후원해주시는 후원사(광고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고 개선해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카이트랙스 선정  
13년 연속 5스타항공사  
(2007~현재)

# 아름다운 여정 아시아나와 함께 하세요!

마음을 다하는 정성 어린 서비스로  
여러분의 여행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약 및 문의 • +7-727-356-3235 • flyasiana.com

A STAR ALLIANCE MEMBER ☆ **ASIANA AIRLINES** 



# 카자흐스탄에서 새롭게 구성된 내각은 어떤 사람들인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내각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Zakon.kz은 앞으로 누가 카자흐스탄 정부를 이끌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로만 스클라르는 수석부총리로 임명되었다. 2019년부터 부총리로 직임을 수행했다.

예탈르 투그자노프는 부총리에 재임명되었다. 그는 2020년부터 부총리였다.

무흐타르 틀레우베르디 역시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바흐트 숄탄노프는 무역 및 통합부 장관으로 재임명되었다. 2019년부터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외에도 부총리로 임명되었다.

갈즐란 코이쉬바예프는 2019년부터 총리실의 수장을 맡고 있다.

무라트 베타노프는 2021년 8월부터 임명되어 재직중이던 국방부 장관으로 남게 되었다.

예를란 투르굴바예프는 2019년에 임명된 내무부 장관을 재임하게 되었다.

아스카르 우마로프는 공공 개발 및 정보부의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공공 개발 및 정보부의 차관을 지냈다. 우마로프는 여러 해 동안 'Kazinform' 국장과 국영방송 카자흐스탄의 부사장으로 재임했다.

예르볼 카라슈케예프는 2021년 9월부터 농업부 장관이었고 계속 재임하게 되었다.

카나트 무신은 법무부의 새로운 수장이다. 2021년 7월부터 카자흐스탄 대법원의 판사를 지냈다. 그의 전공은 법률가로 오랫동안 무신 장관은 아스타나 검찰청 부청장으로 수도 법무부를 지휘했다.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는 교육 과학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아자르 기니야트는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악토베 국립

의료대 소아과 전공의를 수료했고 예센노프 악타우 국립대 '국가 및 도시 운영'을 전공했다. 그리고 Almaty Management University (ALMU)에서 사업행정 MBA를 수료했다. 보건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기니아트는 보건부 차관으로 있었다.

세릭 샤프케노프는 사회보호 및 노동부 장관으로 계속 재임하게 되었다.

카이르벡 우스켄바예프는 새로운 산업 및 인프라 개발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법률 전공으로 소련 카라간다 대학을 졸업했고 시폴린 악크몰 농업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쿠밀레프 유라시아 국립대에서 국제 관계를 수료했다. 오랫동안 악크몰주 민영화 위원회 부위원장, 국립경제부 차관을 역임했다. 산업 및 인프라 개발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산업 및 인프라 개발부 차관을 지냈다.

예를란 자마우바예프는 재경부 장관으로 남았다.

다우렌 아바예프는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레닌그라드 대학, 예브라지야 인류 대학을 졸업했다. 이전에 카자흐스탄 대통령 수석비서로 근무했고 정보 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2020년 5월부터 아바예프는 대통령 행정실 수석비서를 재임했다.

유리 일린은 비상사태부 장관으로 계속 재임하게 된다.

알리베크 쿠안트로프는 국립경제부 장관이다. 톰스크 국립대에서 금융과 자금을 전공했고 언어학 및 문화간 소통 역시 전공했다. 또한 2010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블라삭 장학제도로 공부했다. 그는 응용경제학의 석사를 취득했다. 이전에 쿠안트로프는 투자 정책 및 거시 경제 계획부 수석 전문가로 근무했고 초대 대통령 엘바스비서실에서 근무했다. 2021년 2월부터 국민경제부 차관으로 업무를 수



행했다.

바그다트 무신은 디지털개발, 산업 및 항공산업부 장관으로 계속 업무를 진행한다.

세리칼리 브레케세프는 생태계, 지질, 자연자원부 장관으로 남았다.

블라트 악크출라코프는 에너지부의 새로운 장관이다. 그는 카자흐스탄 경영 국립아카데미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석유 산업 교육센터에서 하층도 사용 계약 평가 및 석유생산 경제학을 수료했다. 오랫동안 악크출라코프는 '카즈무나이

가스'국영기업의 사장으로 있었고 에너지부 차관과 석유 및 가스부 차관을 지냈다.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삼록 카즈나'펀드 이사장을 지냈다.

/자문

## 우즈베크 부총리, 코로나 백신 의무화 가능성 언급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관광 및 스포츠 장관인 아지스 압두카키모프가 지난 수요일 타슈켄트에서 열린 위생 및 역학 웰빙 보장 조치 회의에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의무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자(UzA)통신에 따르면 장관은 국민들이 허위 백신접종 증명서를 구매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과정마저도 부패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허위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나이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은 의무화 될 것입니다. 오미크론 균주가 국내에 침투한 것 또한 어느 정도 우리 부주의의 결과였습니다."라고 부총리는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백신접종 캠페인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작됐다.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백신은 중국산 안후이 지피

룽콤 바이오 제약과 코로나백, 러시아산 스푸트니 V와 스푸트니 라이트, 스웨덴-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산 모더나 그리고 미국-독일산 화이자/비온택이 되겠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작년 8월 3일부터 고용주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직원은 해고되지 않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 규범은 공식적으로 노동법에 포함됐다. /스푸트닉



EXPERIENCE WORLD CLASS FINANCIAL SERVICE

One Shinhan

# CSTO 평화유지군 13일부터 철수 시작, 23일까지 모두 철수 예정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카자흐스탄 임무는 끝났으며 1월 13일부터 평화 유지군의 단계적인 철수가 시작됐다고 자콘(Zakon.kz)이 보도했다.

알마티에서 CSTO 부대가 집결한 가운데 당국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뛰어난 병사들에게는 포상이 수여됐다.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자대 복귀 후 표창이 수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STO의 스타니스라브 자스 사무총장은 연설 중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제 저는 카자흐스탄 최고사령관인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 모든 평화유지군, 정직하게 군 복무

를 하고 카자흐스탄에 도움을 준 모든 병사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CSTO 사무총장 스타니스라브 자스.

알마티 시장 바키잔 사긴타예프는 평화 유지군이 중요한 국가 및 전략적 시설의 보호에 참여하고 할당된 지역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알마티 사태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나라간의 형제애적인 친밀함, 우정과 좋은 이웃 정신에 입각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 알마티 시장 바키잔 사긴타예프.

“이제 어두운 날은 끝났고 알마티는 더욱 아름답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시장은 말하며 알마티 시민

들을 대신하여 알마티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평화 유지군에게 감사를 표했다.

시상식 후에는 병사들의 군 행진이 진행됐다.

1월 5일, 알마티에서 폭동이 일어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그날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은 CSTO 국가 리더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국가들은 평화 유지군 배치를 승인했다. 1월 11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CSTO의 임무 완료를 발표했고 평화 유지군은 1월 23일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리고 러시아가 포함된다. /자콘

## 한인회 & 교민 동정란

한인회 소식과 교민·기업들의 짧은 소식을 모아서 전합니다.(예:모임,부임/귀임,관혼상제 등)

하나. 신규 후원사(광고주) ‘CNK 알마티 로지스틱스’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1면 광고를 참고해 주세요.

둘. 신규 후원사(광고주) ‘알마티 부동산’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5면 광고를 참고해 주세요.

셋. 기존 후원사(광고주) ‘Massiso 카페강남’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6면 광고를 참고해 주세요.

넷. 신규 후원사(광고주) [P&C international]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면을 참고해 주세요.

다섯. 카자흐스탄 한인회에서는 긴급한 사항이나 행사 안내 등 교민 전체를 대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교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고 습니다. 아래 표시된 QR 코드를 어플로 스캔하거나, 통해 새로 열리는 창에서 채널 추가를 하시면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쌍방 대화 가 아닌 중요 공지 및 소식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채널을 추가하셔도 단독방 처럼 수시로 올라오는 대화 알람으로 스트레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13대 카자흐스탄 한인회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 회장: 강병구
- 수석부회장(사무처장 겸임): 박태상(+7 777 400 3199)
- 사무처 실장: 강우환(+7 747 674 5800)

### 카자흐스탄 지상사 협의회

- 회장: 박균열
- 총무: 김요셉(+7 701 880 8600)
- 이메일: yosep@shinhan.com

###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연합회

- 회장: 김성태(+7 701 726 9730)
- 총무: 조주연(+7 705 900 8662)
- 이메일: chocho6652@naver.com

## → 2022년 설날대잔치 관련 안내문 ←

2022년을 시작하며 카자흐스탄에 비상사태 선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1월 29일 예정되었던 ‘2022년 설날대잔치’ 온라인 행사가 카자흐스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축소되거나 다른 방

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설날대잔치’ 장기 자랑을 준비하셨던 분이나 기타 행사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교민

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결정되는 내용은 신문과 온라인(한인신문과 한인회, 카톡 채널 등)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Law Firm AK

Law Firm AK는 대한민국 법무법인 지평과 제휴하여 카자흐스탄 및 CIS국가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소중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 기업 및 투자 법률 자문

- 법인(지점) 설립 및 청산
- 카자흐스탄 기업 법률실사 및 M&A
- 카자흐스탄 현지 노동법 자문
- 카자흐스탄 기업 법률 자문 등

### 소송 대리

- 중재 및 소송 수행
- 보전처분 및 집행절차 대행
- 사설공매절차 대행
- 소송 코디네이션

/카자흐스탄 주재 변호사/ 양용호 변호사 · +7 701 537 0599  
김태영 변호사 · +7 775 386 4400

## Tax&Accounting Firm AK Partners

AK Partners는 다년 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진출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회계 및 조세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건설면허, 취업허가, 비자 등 인허가 업무도 신속 정확하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 회계 및 세무 자문

- 회계 기장 자문 및 대행
- 세무 신고 자문 및 대행
- 회계 세무 실사
- 조세 전략 자문

### 인허가 자문 및 대행

- 건설면허 취득 자문 및 대행
- 취업허가 취득 대행
- 비자 및 초청장 발급 업무 대행 등

/카자흐스탄 주재 컨설턴트/ 배상현 대표이사 · +7 777 705 8822  
서유진 과장 · +7 701 973 5554

#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23만1,314명 등록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23만1,314명으로 잠정(한국시각 1월 10일 07시 현재)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10일 밝혔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19만9,156명이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3만2,158명(=영구명부 등재자 2만3,310명+신규 신고·신청자 8,848명)이다.

이는 전체 재외선거권자로 추정되는 200여만명의 11.51% 수준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30만197명) 대비 22.9% 감소, 제21대 국회의원선거(17만7,099명) 대비 30.6%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만5,058명, 중국 3만1명, 일본 2만9,446명으로 3개국 신청자 수가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11만2,626명(48.69%)으로 가장 많고, 미주 7만6,318명(32.99%), 유럽 3만2,847명(14.20%), 중동 6,883명(2.98%), 아프리카 2,573명(1.12%) 순이었다.

재외선거인명부등은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월 7일에 확정된다.

한편, 중앙선거위는 오는 1월 17~21일 기간 중 공관 재외선거 담당자 대상 투표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재외동포신문

## ② 대륙별 신고·신청 접수상황(공관)

대륙별	공관수	추정 재외선거권자	신고·신청합계 (신고·신청률)	영구명부 등재자수	신규 신고·신청자수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계	178	2,009,192	231,247 (11.51%)	23,310	8,848	199,089
아주	53	887,641	112,626 (12.69%)	10,416	4,132	98,078
미주	39	1,000,874	76,318 (7.63%)	12,276	4,416	59,626
구주	48	98,597	32,847 (33.31%)	578	277	31,992
중동	18	14,616	6,883 (47.09%)	13	9	6,861
아프리카	20	7,464	2,573 (34.47%)	27	14	2,523

##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테러리스트와 약탈자들의 공격은 카자흐스탄 기업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Zakon.kz 통신원은 무엇을 위해 평가가 필요하고 사업자들은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가장 먼저, 이번 사태로 사업체가 피해를 입은 기업가들은 손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테러리스트와 약탈자들의 범죄 흔적과 피해 입은 장소들을 만지거나 치워서는 안된다. 반드시 지문 채취를 위한 조사반을 부르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이 후에만 물건을 다른 곳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손상되고 도난당한 재산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후 경찰에 재판전 조사를 위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 외에도 외부와 내부를 활

영한 동영상 녹화본을 제출해야 한다. 피해를 보거나 도난당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범죄가 일어난 시점에 이러한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송장, 세금계산서, 입고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국립기업연합 '아타메켄'은 정부기관에 자료를 전달하고 향후 지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피해입은 기업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사업자들에 연락하고 향후 조치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사업활동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약탈 사실에 대해 알려야 한다.

“우리가 이전에 제공한 권장사항 외에도 범집행기관에 긴급하게 사업체에 지원을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저질러진 범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현장 조사 기술서를 작성하고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아이투아르 코쉬맘베토프 알마티 기업연합 이사는 말했다.

그는 다행히 약탈당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은 사업자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다른 많은 사업자들이 범집행기관이 범죄 현장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 문을 열수 없다고 설명했다.

###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증명서

비상사태로 인해 계약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대외무역연합에 전자메일로 필요한 서류들을 발송해야 한다. info.cci.kz@gmail.com 또는 online@atameken.kz로 보낼 수 있다.

서류 검토 및 증명서 발급 기간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이후 근무일로 15일이 소요된다.

### 필요한 서류 목록

-신고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는 영업활동시작에 대한 통지서

계약서, 사양서, 별첨, 계약서에 대한 보충 계약서의 스캔 사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신청서는 국립기업연합 행정실의 아자마트 보타바예프 전문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전화번호: +7-727-331-01-33, +7-702-403-24-94)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연합에 추가 서류를 문의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상황이 기업들에 계약에 의한 자신의 모든 의무를 모두 면제하거나 파트너와의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서는 이행하지 않은 의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회사로부터 손실, 위약금, 벌금, 연체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기업에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 회사들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지원 펀드

사업자들은 비상사태 시작부터 형성된 피해입은 사업자에 도움을 지원해주는 펀드 '단일화된 힘'에 문의할 수 있다. 펀드의 자금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될 것이다. 여기에 힘을 보태고 싶은 시민은 펀드에 지원할 수 있다. 한 카자흐스탄 사업가는 이미 5억 텡게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락처 : +7 775 126 18 39, +7 777 947 00 77

### 정부

국가소득 위원회는 2022년 1월 5일부터 19일까지 기술적 실수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납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할 수 있고 2022년 1월 19일 이후 15일 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업하면 된다. 여기에 대한 벌금은 징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악크오르다에서 정부는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도움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콘

**KYL LOGISTICS**

Bulk Cargo  
Container  
Air Cargo

(주)케이와이엘이  
2021년 1월 06일을 기하여  
“창립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광과 고난의 12년 세월을 지나  
지금 이렇게 서있게 해준 것은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의 덕분임을 알기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EOUL: +82 2 711 7170 / ALMATY: +7 701 484 0267 / www.kyl.co.kr

**루벤스 여행사** 아시아나 항공 판매 대리점



항공권  
판매



호텔  
예약



누르따우  
쿠폰판매  
(최소 1장 구매가능)

**RUUVENS CORPORATION** | 누르따우 비즈니스센터 2V 804호 / +7 727 311 1745, +7 701 786 2334(러,한)  
almaty@ruvrens-kz.com / www.ruvrens.kz

#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을 축하합니다!

세리바에바 자리파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 전임교원

2021년의 끝자락에 알마티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료식이 있었다. 김태환 원장과 소속 직원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마친 여러 명의 단계별 수강생들(장학생들)이 함께 했다. 수료식의 첫 순서로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 이병조 교수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무총리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한국학과에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원장과의 기념 촬영과 더불어 축하를 위해 참석했던 여러 명의 한국학과 동료 교원들과 학생들로부터 꽃다발과 선물이 수상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병조 교수는 2015년 2월부터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동방학부 한국학과에서 재직해 오고 있다.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병조 교수는 한국인 특유의 성실성과 근면성으로 학과와 대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한국학 교육과 발전을 위한 학술프로젝트와 지속적인 장학금 유치,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 수행과 해외대학 간 주요 협정체결, 한국학 경시대회 조직 및 수행, 고려인 디아스포라 이해교육 사업 시행 등, 그가 카자흐국립대 한국학 토대 강화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결코 작지 않다. 짧은 재직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2회(2016년, 2020년)에 걸친 대학당국으로부터의 공로상 수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병조 교수는 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외국인 교원이다. 모든 교원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협력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줄 알며, 무엇보다 소통할 줄 아는 동료이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은 한국정부로부터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병조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오랜 동안 함께 근무해 온 동료와 학과의 입장에서 매우 의미있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병조 교수가 학과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며 그 동안 한국학과 내에서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성과들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해외한국학 프로젝트(2017.6~2020.5) 유치를 들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학과에서는 7권의 한국문학(고려인 문학 포함) 교재들을 확보하고 3명의 관련분야 인력을 양성했으며,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분야도 체계적으로 다져나갈 수 있는 큰 발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한국학 사업을 수행 중인 17개국 한국학사업팀이 참여하는 한국학 국제세미나 프로젝트(2018.1~10)를 유치하여 카자흐국립대와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으며, 나아가 고려인 디아스포라 이해교육 사업을 유치하여 2년에 걸쳐 고려인 디아스포라 교육을 수행했고(고려인 사회의 각 분야의 주요 인물들이 직접 특강 강사로 참여), 이를 통해 소수민족 고려인을 잘 알지 못하는 주변의 타민족 젊은 세대들에



게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수상 소감에서 이병조 교수는, "지난 7년 동안 주어진 일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는 마음대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한국교육원과 활동할 수 있도록 늘 배려를 해주시는 대학당국과 학부, 학과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의미로 알고, 대학과 나아가 카자흐스탄 땅에 한국어와 한국학의 토대가 더 견고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수상

의 기쁨과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필자가 이병조 교수에게 직접 물어 보았다. "교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학과에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는, "학생들은 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경까지는 아닐지라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생겨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학생들을 위해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했고, 진정으로 학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그 동안 그가 보여준 그대로, 그에게 어울리는 답변이었다.

이병조 교수는 한국학과 뿐만 아니라 학부 내 모든 타학과 학생

들 및 교원들과도 친분이 좋다. 학부 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항상 특유의 친화력으로 모두와 친구가 되고 교감을 나눈다. 그의 활동의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병조 교수의 어깨에는 다양한 형태의 임무와 과제들이 달려 있다. 알마티 내 한국 기업들과의 산학협력 구축과 확대, 한국 대학들과의 교류 확대, 졸업생들의 취업 등도 그에게 주어진 과제들 중 일부이다. 이병조 교수에게는 한국인 특유의 성실성과 근면성 DNA가 있다. 2022년 새해에도 그의 역량이 발휘되고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병조 교수님, 알가!"

## 지난 15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입국 규정 변경

2022년 1월 15일부터 공화당 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입국 규정이 도입됐다고

UzAirways의 언론 서비스가 보도했다. 항공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

국하는 승객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CR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검사를

한 시점부터 국경을 넘을 때까지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항과 국경 통과 지점에서 익스프레스 COVID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앞서 보건부는 오미크론 균주가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러스는 두바이에

서 타슈켄트에 도착한 사람에게서 발견됐다. 이 환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검역 규제를 강화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푸트니

**P&C 한국 K-방역 System**

세균, 곰팡이, 녹조, 코로나-19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방역(친환경 살균, 소독, 탈취)

소독제: 이산화염소수 (ClO2)  
차아염소 (락스) 대비 2.5 배 이상 강한 살균력  
차아염소 (락스) 대비 5배 이상의 소독력  
친환경 산소계 소독제(식약청 사용권고 소독제)

BURE GOOD FOG 초미립자 무선 분무기/강풍 청소기 (8m~10m 분사력으로 빠른 방역 소독)  
BURE LTE 초미립자 유선 분무기/강풍 청소기 (8m~10m 분사력으로 빠른 방역 소독)

★★ 전신소독 발열체크기 판매 ★★

방역 문의 및 판매, 임대: +7 776 697 88 00 (한국어)  
+7 776 702 33 00; +7 727 269 54 47 (카자흐어/러시아어)

**유니온 파트너스**

www.unionp.kz

- /인허가 등록 업무/ 의약품·의료기구·의료장비
- /면허 발급 업무/ 의사면허·병원허가·전문인 면허
- /등록 업무/ 화장품·건강식품·해산물
- /영주권 취득·연장/

+7 747 811 8971(러) info@unionp.kz  
+7 701 218 0654(한) hmy600@hanmail.net  
#204, BC "Ambassador", Block-45, Line-22, Almaty  
\*잔도사바 - 로즈바끼예비\*

유니온 덴탈 클리닉  
«UNION DENTAL CLINIC»

- 최신 한국 치과 장비 및 진료 시스템
- 최신 CT 및 DIGITAL 장비보유
- 서울 참좋은 치과 협진 병원

(코로나 기간 한국 의사 부재시 실시간 영상 진료)

+7 777 132 17 42 (러시아어)  
+7 727 983 43 53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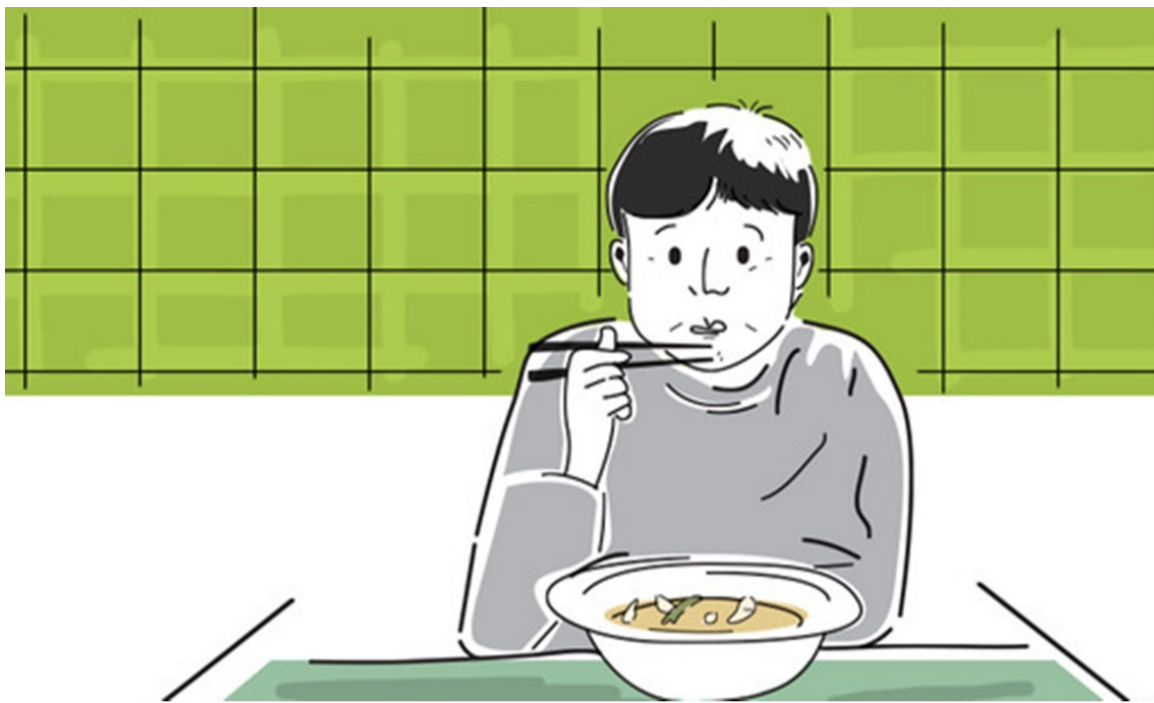
www.uniondental.kz

주소 아바야 150/230 3블록 1층

아바야  
GaukharTas Building  
Roziyevskaya Str.  
Kung' Oral Str.

## 중년의 독신·이혼남, 염증 많고 면역기능 ↓

코메디닷컴



빠에 사무치는 외로움 탓일까? 아니면 무절제한 삶이나 운동, 영양 부족 때문일까?

중년 남성이 수년간 혼자 살거나 이혼 등 잇따른 이별을 겪을 경우, 온몸에 염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면역 기능도 똑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년 간의 독신 생활, 헌신적인 관계(부부 또는 연인 관계)의 잇따른 파탄은 남성 핏속의 염증 표지자(마커) 수치 상승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신의 낮은 등급 염증(systemic low grade inflammation)'으로 분류될지라도 염증은 지속적이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혼, 이별 등 헌신적인 관계의 파탄에는 종종 오랜 기간의 독신 생활이 뒤따른다. 이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악화, 면역력 저하 및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종전에 발표된 연구 결

과를 보면 한 차례의 파트너 관계 파탄을 중시하고, 이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연구팀은 중년의 면역 체계 반응에 파트너 관계 파탄의 누적 횟수 또는 독신 생활의 햇수(연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성별 및 교육 수준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고 싶었다.

연구팀은 덴마크의 48~62세 참가자(남성 3170명, 여성 1442명)가 '코펜하겐 노화·중년 바이오뱅크(CAMB)'에 제출한 정보를 활용했다.

또 1986~2011년 참가자 4635명(남성 3170명, 여성 1442명)이 보고한 파트너 사망 등 파트너 관계 파탄의 누적 횟수에 대한 정보, 참가자 4835명(남성 3336명, 여성 1499명)이 보고한 독신 생활의 햇수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독신 생활의 햇수를 1년 미만(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참조그룹으로 정의함), 2~6년, 7년 이상 등으로 분류했다.

또한 면역체계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입수했다.

이 정보에는 나이, 교육 수준, 어린 시절의 주요 인생 사건(부모를 여읜, 돈 걱정, 가족 갈등, 위탁 양육), 몸무게(BMI, 체질량지수), 장기적인 질병, 염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스타틴,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면역억제제), 최근의 염증, 성격특성 점수(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혈액 검체에서 염증 표지자인 인터루킨 6(IL-6)과 C-반응성 단백질(CRP)을 측정했다.

참가자의 약 50%는 파트너 관계의 파탄을 겪었고, 이와 비슷한 비율이 1년 이상 혼자 살았다(여성의 54%, 남성의 49%).

참가자 5명 중 1명은 10년 이하의 교육을 받았고, 10명 중 6명은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 약 50%가 어린 시절의 주요 인생 사건을 겪었고, 여성의 약 50%와 남성의 약 3분의 2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트너 관계의 파탄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들이 가장 높은 염증 표지자 수치를 보였다. 그들은 참조 그룹보다 염증 표지자의 수치가 17% 더 높았다. 또 이와 비슷하게, 독신 생활을 가장 오래 한 그룹(7년 이상)에서 염증 표지자 수치가 최대 12% 더 높았다.

또한 고학력에 2~6년 동안 독신 생활을 한 남성이 가장 높은 수치의 C-반응성 단백질을, 7년 이상 독신 생활을 한 남성이 가장 높은 수치의 인터루킨 6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남성의 경우에만 관찰됐고, 여성들 사이에선 이런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팀 분석에 의하면 파트너 관계가 깨진 뒤 남성은 자신의 행동을 음주로 외부화하는 데 비해, 여성은 우울증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은 염증 수치에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팀은 여성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때문에도 이런 불일치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은 관찰 연

구여서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이 54세여서 염증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의 완전한 결과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

연구팀은 "남성은 같은 또래의 여성보다 더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면역 기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암,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등 연령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전신의 낮은 등급 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특히 몇 년에 걸친 독신 생활과 몇 차례 이혼(또는 파트너와의 이별)의 조합은 염증 표지자인 CRP 수치와 IL-6 수치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수년 간 혼자 사는 삶과 수차례의 이혼 또는 이별이 겹치면 온몸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날로 늘고 있는 1인 가구에 경종을 울린다.

## 오영수: 이제 '세계 속의 우리' 아니고 '우리 속의 세계'...골든글로브 수상 소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한 오영수 배우가 10일(한국시간) 제 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골든글로브에서 한국계 배우인 샌드라 오, 이콰피니가 수상한 적은 있지만 한국인 배우가 상을 받은 것은 오영수 배우가 처음이다.

그는 넷플릭스를 통해 "수상 소식을 듣고,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고 말했다. 이제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의 세계'라며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세계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골든글로브 '작품상'과 이정재

배우가 후보로 올랐던 'TV 드라마 남우주연상' 후보 2개 부문 수상은 불발됐다.

올해 골든글로브의 작품상은 '석세스션'이, TV 드라마 남우주연상은 '석세스션'의 제레미 스트롱이 거머쥐었다.

하지만 두 부문의 후보에 오른 것만도 한국 영화 드라마 역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제79회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부문 작품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외에도 극 중 성기훈 역의 이정재 배우가 남우주연상, '간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의 오영수 배우가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한국인 배우로는

최초로 연기상에 도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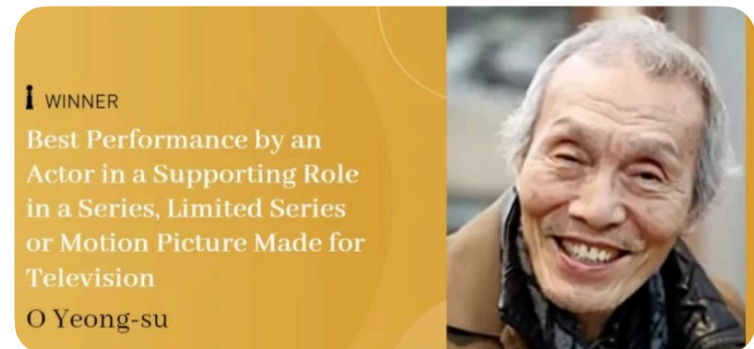
오 배우는 '더 모닝쇼'의 빌리 크루덤, '석세스션'의 키에란 컬킨, '더 모닝쇼'의 마크 듀플라스, '테드 라소'의 브렛 골드스타인과 경합을 벌인 끝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의 수상 소식에 소셜미디어 트위터에는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한편 아카데미상과 함께 가장 권위 있는 영화-TV 시상식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올해는 스타도 방청객도 없었다.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중 없이 진행됐고, 매년 시상식을 생중계한 NBC 방송은 올해 행사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백인 위주의 회원 구성과 성차



별 논란, 불투명한 재정 관리에 따른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지면서 할리우드 제작사, 홍보 대행사를 비롯해 영화배우들도 줄줄이 시상식 보이콧에 나섰다.

골든글로브 측은 별도 중계 없이 수상 결과를 소셜미디어와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앞서 골든글로브는 지난해까지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

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생충'과 '미나리' 출연 배우들은 연기상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기생충'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했고, '미나리'의 윤여정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골든글로브의 비영어권 작품에 대한 차별 논란이 거세졌다. /BBC코리아



## 밖에서만 잘하는 남편... 왜 이럴까요?

중년 여성인 A의 남편은 '다정한 사람'으로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배려 깊은 태도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A씨는 주변에서 그런 남편을 두어 얼마나 좋으냐는 부러움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A씨는 표정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 밖에서의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기 때문이다.

A씨의 남편은 집에서는 세상 없이 무뚝뚝한 사람이다. 말을 섞기도, 감정적으로 교류하기도 쉽지 않다. 밖에서 하는 만큼만 집에서 해보라고 불평을 해봐도 남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본인은 다를 것이 없다는 태도다. 물론 결혼 전 A가 봐왔던 남편의 모습은 지금 가정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금 남편이 보는 것과 똑같이 A도 남편을 다정하고 배려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예전에 자신이 알던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때문에 A씨는 과연 내가 남편을 제대로 알고 결혼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과연 A씨의 남편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그가 보이는 이중인격의 원인은 무엇일까?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A씨 남편의 경우 외부와의 관계에서 설정된 자아의 모습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설정된 자아의 모습이 극명하게 다르다. 즉 너무

나도 성격이 다른 자아의 모습들을 외부와 가정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집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밖에서 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자. 집에서 부리던 투정을 직장에서도 똑같이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 집에서 가족에게 하던 대로 감정적인 말들을 회사 동료와 상사들에게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내기 힘들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가족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인격을, 조직에서는 직원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생활한다. 인간은 서로 집단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아로 생활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역할을 중심으로 인간관계에서 형성된 자아, 즉 자신의 원형적 근본 모습을 관계를 통해 표출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사회적 자아, 다른 말로 연극에서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 페르소나라고 부른다.

인간은 모두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사람들로 부터 호감 받는 사회적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남들에게 잘하는 이유도 남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고 멋지고 훌륭한 매력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밖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의식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페르소나에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경우다. 예를 들었던 A씨의 남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외부적 관계 속 페르소나에 집중하기만 할 경우에는 스스로의 모습을 잃기가 쉽다.

아마 A씨의 남편은 본인은 외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본인이 이중인격이거나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는 페르소나는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자신과 페르소나의 불일치가 너무나 심할 경우 본인의 욕구와 생각을 제대로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미 가족관계에서부터 A씨의 남편은 진정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무척이나 크다. 외부의 평가와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우선, 내가 하는 행동의 원인들을 찾아보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될 때 내가 하는 행동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된다. 나를 이해하고, 내 모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경우 외부에 보이는 내 모습을 꾸미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다.

밖으로 보이는 무척이나 다정하고 배려 깊은 내 모습도, 집안에서의 무심한 내 모습도 사실은 모두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다. 내가 밖에서 하는 행동들의 배경을 따져보고, 동시에 집안에서 하는 행동의 원인들을 파악해보면 '진정한 나'에 대해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런 훈련을 이어갈 경우 상황에 따른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 사이에서 지나치게 떨어진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며, 외부가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마음을 알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코메디닷컴

## 인도 남성 '백신 11차례 접종 받았다'...'무릎 통증 없어져'

인도의 한 남성이 지난해 최소 8차례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았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브람데오 만달은 자신이 인도 비하르 주에서 11회 접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직 우편배달부인 만달은 "백신이 무릎 통증을 없애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어떤 부작용도 겪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2번째 백신 접종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비하르주의 마데푸라 지역에서는 그가 어떻게 11회에 걸쳐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데푸라의 민간외과의 아마렌드라 프라탐 사히 박사는 BBC에 만달이 4곳의 접종센터에서 8차례

백신 접종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1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인도는 주로 코비실드와 코박신 등 현지 제조 백신을 자국민들에게 접종 중이다. 두 백신은 각각 12~16주, 4~6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접종이 이뤄진다.

백신 접종은 대부분 자발적이며, 대부분 9만 개의 국영 센터들을 통해 제공된다. 이들 센터 중에는 사전 온라인 등록 없이도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워크인(walk-in) 접종을 제공한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이들은 생체인식 카드, 유권자 ID,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인도의 백신 포털인 코윈(CoWin)에 업로드된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만달은 30분 간격으로 백신을 접종한 적도 있다.

당시 각각의 백신접종 기록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등록됐다.

때문에 사히 박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당황스럽다. 포털에 장애가 발생한 것 같다. 접종 센터 관리자들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만달은 백신 접종 날짜, 시기, 센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손글씨로 메모해두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11차례 접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데푸라 전역의 접종 센터뿐만 아니라 100km 이상 떨어진 인근 지역 두 곳까지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만달은 또 백신 접종을 위해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만달은 그가 우편배달부 일을 하기 전에 마을의 "비공식 의사"였다고 "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릎 통증이 있어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나, 백신을 접종 받은 후 통증이 사라져 지팡이 없이 다닌다고도 말했다.

라하리야 박사는 이에 관해 "백신 이상반응은 보통 1, 2회 접종 때에만 나타나게 된다"라며 "항체가 형성돼있는 상태에서 백신을 여러 차례 맞는다고 해도 백신은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BBC코리아



**개나리벽지**

---

**공장/창고 임대**

---

**디지털 도어록**



문의:  
8(777)400 3199(kor)  
8(701)646 6695(rus)

#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 김천택은 왜 '19금' 노래를 엄선했을까\_1

“사람 기다리기 참 어렵군. 사람 기다리기가 참말 어려워... 닭이 세 번 우니 벌써 밤은 5경 ... 문밖에 나가 바라보아도 문밖에 나가 바라보아도... 이윽고 개 짖는 소리에 백마 탄 님이 던지시 돌아 드니...오늘밤 두 사람의 즐거움이야 끝이 없겠지?”

김천택의 <청구영언> '만횡청류'에 등장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여성이다. 여성은 '백마 탄 남자'를 밤새도록 기다린다.

얼마나 애를 태웠으면 '사람 기다리기가 참 어렵고(待人難)' '문밖을 나가 바라본다(出門望)'는 말을 반복했을까. '백마 탄 남자'라는 말은 바람둥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애타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5경(새벽 3~5시 사이)이 되어서야 남자가 나타난다. 애간장이 녹은 여성은 뜨거운 관계를 기대한다. "그 즐거움이 끝이 없겠지?"하는 바람을 노래에 한가득 담았다.

### “김적삼 안섰어 되어 쫘득쫘득 대보고 싶어라”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떨까. 상사병의 괴로움을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다.

“뉘 그리워 깊이 든 병 어이하면 고쳐낼까. 의원 청하여 약 짓게 하고 소경에게 푸닥거리 시키며 무당 불러 당줄긋기 한들 이 모진 병이 나을쏘냐. 진실로 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나을 듯하구나.”

사랑하는 님이 보고 싶어 얻은 병은 그 누가 와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치유책이 딱 하나 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은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씻은 듯이 낫는다는 것이다. 견딜 수 없는 짝사랑의 아픔을 19금을 넘나들며 부른 노래도 있다.

“각시네 옥 같은 가슴팍을 어떻게 좀 대어볼 수 없을까. 명주 자숫 빛 화장저고리 속에 김적삼 안섰어 되어 쫘득쫘득 대어보고 싶어라. 이따금 땀나서 불기만 하면 떨어질 줄을 모르더라.”

노래의 주인공은 남성이다. 좋아하는 여인의 옥 같은 가슴을 직접 만져볼 수 없지 않은가.

남성은 '차라리 그 여인의 김적삼 안섰어 되고 싶다'고 애를 태운다. 그래야 여인이 땀을 흘릴 때면 그 여인의 가슴과 닿을 게 아니냐는 것이다.

### “당신은 나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남자는 죽도록 어떤 여인을 사

랑하는데, 여인은 그 사랑을 몰라 준다는 것을 한탄한 노래는 또 어떤가.

“나는 님 생각하길 엄동설한에 맹상군의 호백구같이 하는데... 님은 나를 삼각산 중흥산의 이빨 빠진 늑은 중놈이 살 성긴 얼레빗 보듯 하는구나.”

'맹상군의 호백구(狐白구)'란 무엇인가. 전국시대 제나라 재상인 맹상군이 진나라 임금에게 바친 옷이다. 여우 겨드랑이의 흰 털 가죽을 여러 장 모아 만드는 옷이다. 왕·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명품이다.

남자는 짝사랑하는 여인을 '맹상군의 호백구'처럼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여인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여자가 남자를 "머리 깎은 늑은 중이 성긴 얼레빗처럼 대한다"는 것이니 얼마나 절묘한 하소연인가.

복음성가로 만들었으나 폭넓은 사랑을 받은 노래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청구영언> 중에는 완전 반대의 노래가 있다. 요컨대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다.

“눈썹은 수나베 얹은 듯 이빨은 박씨 까 세운 듯/날 보고 방긋 웃는 모양은 채 피지 못한 삼색 복사꽃이/하룻밤 비 기운에 반만 짙로 핀 형상일세 그려/네 부모가 너 만들어 낼 적에 나만 사랑하라 하신 거야.”

'너희 부모가 너를 낳은 이유는 딱 한 가지, 평생 나만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 “들입다 바드득 안으니...물방아 찼는 소리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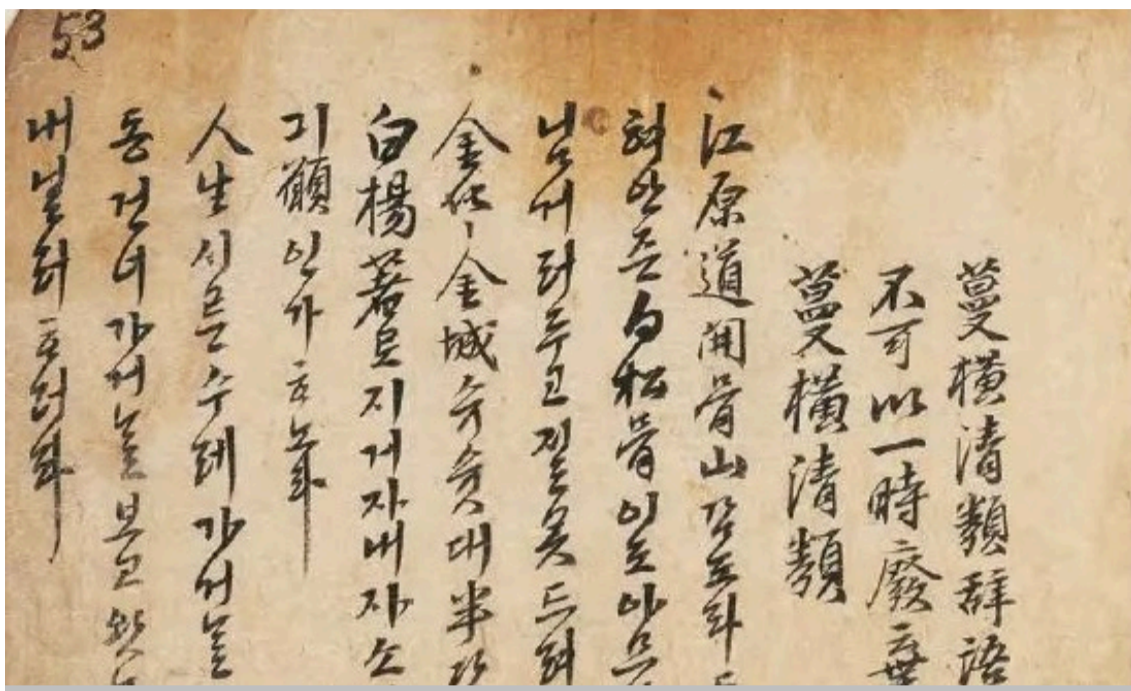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까지 인용한 노래들은 양념에 불과하다. '19금' 딱지를 붙여야 할 노래가 한둘이 아니다.

“들입다 바드득 안으니/ 가는 허리 자늑자늑 빨간 치마 걷어올리니/ 눈같은 살결이 풍만하고 다리를 들고 걸터앉으니/ 반쯤 핀 흥모란이 봄바람에 활짝 피었구나/ 나아가고 물러가길 반복하니/ 숲이 우거진 산속에 물방아 찼는 소리로구나.”

그야말로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이다.

“들입다 바드득 안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껴안아 주세요. 갈베 빼가 똑 부러지도록...'이라는 우스개 가사가 절로 떠오른다.

다음 노래는 포복절도 자체다. “반여든(마흔 살)에 처음으로 계집질하니/ 여럿두렷 우뻑주뻑 주



김천택은 <청구영언>에 19금 노래인 '만횡청류'를 포함시켰다. 비록 음란하고 저속하지만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제공

을 뻥 살 뻥하다가/ 와당탕 들이달아 이리저리 하니/ 노도령의 마음 흔들흔들 진실로 이 재미 알았던들 /기어 다닐 때부터 했겠네.”

두 작품 모두 의성어와 의태어를 동원해서 성행위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뿌리 깊은 인습과 윤리의 벽을 깬 과감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또 어떤가.

“엷고 검고 키 큰 구레나룻 물 건초차 길고 넓다. 작지 않은 놈 밤마다 배에 올라 조그만 구멍에 큰 연장 넣어두고 흘근할적 할 때는 애정은 커니와 태산이 덮어누르는 듯 잔방귀 소리에 젖 먹던 힘까지 다 쓰이는구나. 아무나 이놈을 데려다가 백년 함께 살고 영영 아니 온다 해도 어느 개딸년이 시앗샘을 하겠나.”

### “네 남편한테 이른다. 김서방하고 삼발에 들어간 거...”

심지어는 유부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당신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노래도 있다.

“일러나 보자 일러나 보자. 내 아니 이르리 네 남편한테... 거짓으로 물 깬는 첫 물통은 내려 우물전에 놓고/짜리는 벗어 통꼭지에 걸고/건넌집 작은 김서방 불러내/ 두 손목 마주 덤석 쥐고 수군수군 말하다가/삼발에 들어가서 무슨 일 하는지/잔삼은 쓰러지고 굶은 삼대 끝만 남아 우줄우줄 하드라고/내 쪽 이를 거야. 네 남편한테...”

협박은 물론이고 두 불륜남녀의 행각을 마치 생중계하듯 묘사하고 있다.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간다고 해 놓고는 다른 남자(김서방)를 불러내 삼발에 들어가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이다.

삼발이 쓰러지고 굶은 삼대 끝만 남아 마구 흔들거렸다는 것이니 얼마나 노골적인 표현인가. 그걸 또 “네 남편한테 고자질하겠다”는 것이니...

### “사라진 노래가 분하고 아까워...”

<청구영언>이 무엇인가. 1728년(영조 4년) 김천택이 고려말부터 편찬 당시까지 개인문집이나 구전으로 전하던 가곡 노랫말 580수를 한데 모아 시대별·인물별로 엮은 책이다.

이 노랫말들을 한글로 실었다는 것이 중요한 착안점이다. 태종 이방원의 '하여가'와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단심가', 기생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까지 임금, 사대부, 기녀, 중인, 무명씨의 작품을 모두 모았다.

김천택이 <청구영언>을 지은 속마음은 '발문'에 잘 나와 있다.

“무릇 (사대부가 즐기는) 문장(중국글)과 시율(중국시)은 책으로 편찬돼 오래도록 전해진다. 그러나 (일반 백성이 즐기는) 노래(영언·永言)는 한때 입으로만 불리고 저절로 사그라든다. 이것이 어찌 분하고 아깝지 않은가.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 이름난 분이거나 큰 선비거나, 혹은 어느 백성이나 아낙네들의 노래까지 하나하나 주워모아 틀린 것은 고치고, 깨끗이 적어 책 한 권을 만들어 <청구영언>이라 한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만지면서 눈으로 바라보아 널리 퍼뜨리기를 바란다.”

사대부가 짓고 읊은 글이나 시도 가치가 있지만, 민간에서 사랑받는 노래, 즉 대중가요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사대부의 글과 시는 전

해지지만, 정작 백성들의 애창곡은 한때 유행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김천택은 그것이 '분하고 아까워(慨惜)' <청구영언>을 편찬했다는 것이다.

### 노래는 말을 길게 빼는 것(영언)이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왜 <청구영언>이라 했을까.

'청구(靑丘)'는 예부터 동방세계를 의미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은 '청구'를 종종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표현했다.

단적인 예로 신라 문무왕이 고려 왕손인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하면서 “공의 조상은 그 덕과 공이 크고 높아서 위세가 청구에 떨쳤다”고 했다.

그렇다면 '영언(永言)'은 무엇인가. <서경>의 '시(詩)'에서 인용한 말이다.

“시란 말에 뜻이 담긴 것이다. 가(歌)는 말을 길게 빼는 것이다(詩言志 歌永言).”

무릎을 치게 된다. '시는 말에 뜻을 담은 것'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노래(歌)란 '말을 길게 빼는 것(永言)'이라는 정의도 절묘하다.

그러니까 '노래(歌)'란 '영언'이라는 것이다. <청구영언>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노래'를 모은 노래책이다. 김천택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양반의 노래나 백성의 노래나 다를 수 없다. 그 모두가 조선인이 예부터 사랑해왔던 노래일 뿐이다.”

# 쏟아지는 '리튬 배터리' 쓰레기... 재활용 난제 해결책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한 리튬 배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커다란 과제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가 점점 내연기관을 대체하면서, 익숙했던 세상에 많은 변화가 싹트고 있다. 석유 냄새가 나는 주유소는 전기 배터리 충전소로 대체될 것이다. 언젠가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화석연료 발전소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개조돼,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기화된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화석 연료 자동차 판매를 2035년에 중단하겠다고 올해 초 발표했다. 아우디는 2033년까지 화석 연료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고, 다른 주요 자동차 기업들도 그를 따르고 있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2040년에 이르면 전기차는 전 세계 승용차 판매량의 3분의 2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배터리 저장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그리드 전력 시스템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러한 양상은 에너지와 교통의 지속가능하고 이상적인 미래상이다. 하지만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나 재생에너지 저장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그런데 리튬 배터리는 재활용이 어렵다.

기존의 납 배터리 재활용 방식이 리튬 배터리에는 안 맞기 때문이다. 보통 리튬 배터리는 더 크고 무겁고 훨씬 복잡하다. 잘못 분해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재활용 공장에서선 배터리를 분쇄해 가루로 만든다. 그리고 그 가루를 녹이거나 산성 물질로 용해한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는 조심스럽게 분쇄하지 않으면 폭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 있다. 게다가 리튬 배터리는 고장나면, 재활용이 어려워진다.

영국 잉글랜드 레스터 대학의 물리 화학자인 앤드류 애보트는 "단순히 모든 것을 잘게 부수고 복잡한 혼합물을 걸러내는 기존 방식은 비용은 많이 들고 결과물의 가치는 낮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리튬을 채굴하는 것보다, 재활용할 때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처럼 뾰족한 방법이 없기에 전 세계 리튬 배터리 중 약 5%만 재활용되고 있다. 리튬 배터리 대부분이 사용 후 쓰레기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리라는 전망과 함께, 배터리 및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리튬 배터리 재활용하고자 하는 추진력이 힘을 받고 있다.

리튬 배터리 재활용이 필요한 이유에는 환경적인 부담도 있다.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을 채굴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리튬 1톤을 채굴하는 데, 필요한 물이 50만 갤런(약 227만3000리터)이다. 칠레 아타카마 소금 호수에서는 리튬 채굴이 자연보전 지구 내에 초목 감소와 낮기온 상승, 가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 활용되는 기간에는 CO2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는 커다란 환경 발자국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용 배터리나 재생에너지 저장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하지만 10년 정도 사용하다 방전된 엄청난 양의 리튬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 소비를 모두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몇몇 연구소가 보다 효율적인 리튬 배터리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며, 치솟는 리튬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표준화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법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너지 기술 교수 셸리 명은 "리튬과 코발트, 니켈을 채굴하고 정제해 배터리로 만드는 데는 많은 전기와 노력이 들어가기에 사용주기를 순환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더 이상 배터리를 일회용으로 취급할 순 없다"고 말했다.

리튬 배터리 셀은 리튬과 코발트, 니켈, 망간, 철 등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금속 음극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전기화학 반응에서 전자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 셀 안에는 전자를 외부 회로로 방출하는 양극도 있다. 이 부분은 흑연으로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분리기, 음극과 양극 사이에서 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전해질이 셀의 구성 요소다.

전류는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된다. 배터리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음극에 있는 금속으로, 화학자들은 리튬 배터리를 분해할 때 이 부분을 보존하고 재단장하려 한다.

명은 리튬 배터리를 많은 층을 가진 책꽂이처럼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리튬 이온은 각각의 층 사이로 빠르게 끼어들어 가다, 꼭대기 층에 도착하면 다시 순환된다. '인

터칼레이션(interpolation)'이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각 층의 막이 자연스럽게 부서지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배터리의 구조와 구성 물질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분해 현상이다.

명은 "열이나 화학 처리를 통해 각 층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재활용되고 개조된 재료들을 (리튬 배터리) 공장으로 보내 새로운 배터리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고 분해될 수 있는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조디 러켄하우스 미국 텍사스 A&M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유기물로 만들어졌고 의도적으로 분해 가능한 배터리를 연구해왔다. /BBC코리아

- 화물선적 예약  
매주 화요일
- 화물 마감  
매주 목요일
- 선박 출항  
매주 월요일
- 화물 도착  
출항 30일 이내

60일 운송  
- 트럭 -

90일 운송  
- 트럭 -

항공 운송

중국수입  
트럭운송

**운송비용** USD 3/KGS 부터

TON OVER화물: 별도 문의  
"A통관방식 운송"  
도착지 통관 세금 불포함

CNK ALMATY LOGISTICS Co.,Ltd / 주식회사 씨엔케이 알마티 로지스틱스

+7 701 800 0341 담당자 김진성 이사 / 카톡ID : ss01066140602 / 사무실 : +7 707 747 7995 / 송기범 대표: +7 777 018 6555

## 알짜배기 유머 시리즈

## 사춘기 부부\_2(#53)

또 언제나 그랬듯이 미자는 졸다가 머리를 뒤로 부딪히며 잠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민철은 또 습관처럼 미자의 머리를 어깨로 바쳐 주었다. 미자가 편한자세를 잡으려고 민철의 어깨를 파고 들때 민철은 또 한가지 느끼는바가 있었다. 그것은 미자의 머리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

미자만의 향기.. 민철은 그 향기를 맡으며 마음이 평온해져음을 느꼈다.

처가에 백년손님으로 도착하자 이미 상이 준비 되어졌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대고 또 끽적끄적 대며 과일까지 먹어 치워야만 했다. 언제 봐도 장모님의 눈은 민철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반대로 처가에는 세들어 사는 노인이 있어서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미자 오빠의 '바둑 두자'라는 말과 '졌다 한판더 뒤' 라는 말은 민철을 또 궁지에 몰아 넣고 있었다. 거기다가 명채 녀석의 중요할때의 방해가 간간히 맛물려 묘한 짜증을 불러 일으켰다.

"형님... 말씀좀 여쭙겠습니다."

민철과 미자오빠가 마주앉아 술대적을 하면서 민철이 말머리를 꺼냈다.

"허허.. 백년 손님께서 물어 오시는데.. 어찌 막겠소이까..하하하.."

"세들어 사는 노인 말인데요?"

"응 그래..왜?"

"다른 가족은 없나 보죠?"

"글쎄...나도 잘은 모르겠지만...방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을 보면 아마 가족이 있을꺼야. 한번도 보질 못했으니...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말이야."

"네.. 근데... 오늘 노인의 모습이 보이질 않더군요."

"몰라. 항상 어디론가 나갔다가 안들어 올때도 있고.. 어떨때에는 하루종일 방안에만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때도 있고.. 그나저나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나도 궁금해 지는데.."

"그러게요.."

"뭘 - 가족들이 붙여준 돈으로 어디가서 떼우고 들어 오겠지.. 그런데 왜 그 노인에 대해서 물어보는거야.. 꼬치꼬치.."

"하하... 아닙니다. 그냥 좀 이상해 보여서요."

노인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 다른얘기로 돌아가며 술을 마셔 댔다. 민철이 미자의 주량을 못 따라 잡는데 어떻게 오빠의 주량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역시 민철은 먼저 고꾸라 지고 말았다.

"미자야 -일루 들어와서 네 실랑 업어가라 ~"

미자와 명채가 간신히 끌고 민철을 명채의 방에 눕혔다. 민철은 정신없이 잠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미자는 명채를 나가게 하고 민철의 옷을 벗겨 주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술에 취해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으면 이렇게 챙겨 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다.

그날밤은 미자가 바지로 갈아입으려고 이불 속에서 꿈지럭댔 필요가 없었다.

민철이 깨어 난 것은 이미 해가 중천에 솟아 있을때 였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해는 바보같이 이미 떠올라 있었던 것이다.

민철이 마당으로 나가자마자 노인의 모습을 찾았다. 역시 괜한 기대임을 나타내 주듯이 노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노인의 신발도 없었다. 그렇다면 어제 저녁은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게 틀림 없었다.

잠은 어디서 자는 걸까?어떻게하든 오늘 만큼은 노인의 모습을 보고가고 싶었다. 그러나 끝내는 그노인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장모께서 내민 김치 보따리를 들고 미자 오빠의 악수에 숙취가 진동해 머리가 깨질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미자와 몇차례의 인사를 더하고 골목을 걸어 내려 왔다.

민철의 눈은 아직도 노인의 모습을 찾는지 시종 주변을 둘러보며 골목을 빠져 나오고 있었다. 골목을 다 빠져 나올때쯤 구멍가게 간이 마루에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민철은 기쁘기그지 없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 큰절을 올리며 문안을 여쭙고 싶었다.

민철은 노인의 등뒤로 천천히 다가갔다. 노인은 인기척을 못 느꼈는지 막걸리 마시는데에만 열중 하고 있었다.

노인의 뒷모습을 보니 문득 낮익은 굵은 등이 생각이 났다. 너무나도 낮익은 그러한 모습에서 민철은 하마터면 울음을 터트릴뻔 했다. 왜 이토록 닮아 있는건가.. 외락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을 걸어 보았다.

"저 - .."

노인은 못들었는지 계속해서 술마시는데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걸어내려가던 미자는 민철의 행동이 이상해 우뚝서서 지켜 보고 있었다. 재가 왜 저러지 하는 표정이었다.

민철은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 노인을 불렀다.

"저 - 어르신네.."

/subkorea

‘이것’ 한 스푼,  
암·심장병 사망 위험 낮춘다

올리브유가 심장 질환, 암 등으로 숨질 위험을 크게 낮춘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등 연구진이 성인 남녀 9만여 명의 28년간(1990~2018년)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올리브유를 하루 반 큰 술(7g) 이상 먹는 사람은 심장병으로 죽을 위험이 19% 낮았고, 암은 17%, 폐 질환은 18%,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으로 숨질 위험은 29% 낮았다.

올리브유 섭취량은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묻히거나, 볶음 요리 등에 쓴 것을 모두 합쳐 추산했다.

하루 10g의 마가린, 버터 등 등

물성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면 효과가 더 커 조기 사망 위험이 34%나 줄었다. 반면 다른 식물성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1990년 당시 하루 평균 1.6g에 불과했던 올리브유 소비를 2010년에 4g으로 늘였다. 반면 마가린은 같은 기간 12g에서 4g으로 줄었다.

연구를 이끈 마르타 구아시 페레 박사는 “올리브유 등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 섭취를 늘리라는 보건 당국의 권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코메디닷컴

## 달리기보다 줄넘기가 좋은 이유?

달리기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고, 좁은 공간이라면 줄넘기가 더 유리하다.

필요한 장비인 줄도 매우 저렴하다. 미국 ‘뉴욕 타임스’가 줄넘기의 건강상 이점을 정리했다.

◆과워 업 = 짧은 점프를 반복하는 동안 근육과 힘줄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해야만 한다. 줄을 넘는 짧은 순간마다 힘을 써야 하는 동작이다.

영국에식스대 제이슨 모런 교수는 “줄넘기는 같은 힘이라도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쓰는 파워(순발력)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달리기하는 사람도 속도를 높이려면 줄넘기를 하는 게 좋다. 땅에 발을 디딘 상태보다 공중에 머물 때 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줄넘기로 순발력을 키우면 체공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균형감 개선 =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는 크게 둘로 나뉜다. 빠르게 수축하지만 쉽게 지치는 속근 섬유와 반응이 느리지만, 피로에 강한 지근 섬유다. 줄넘기를 하면 속근 섬유가 발달한다.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의 엘리시아 로비차우 박사는 “줄넘기

를 할 때 속근 섬유는 빠르게 반응하여 그 신호를 뇌로 신속하게 보낸다”고 말했다. 속근 섬유가 잘 발달하면 몸의 방향을 틀 때 넘어질 위험이 줄어든다.

◆뼈 튼튼 = 뼈는 줄넘기 같은 점프로 부하가 걸리면 더 단단해진다. 스탠퍼드대 의대 마이클 프레데릭슨 박사는 “골밀도를 높이려면 줄넘기처럼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부상 감소 = 점프, 줄 돌리기, 발 바꾸기 등 줄넘기의 세부 동작은 달리기보다 더 다양하다. 프레데릭슨 박사는 “줄넘기처럼 여러 방향으로 뼈와 근육을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 다른 운동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줄넘기는 보기보다 격한 운동이다. 줄넘기 10분은 달리기 30분과 맞먹는다. 따라서 줄넘기 초심자는 천천히 줄을 넘고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여야 한다.

관절 충격을 완화하려면 무릎을 살짝 굽히고 뛰고, 발바닥 전체가 아닌 발볼로 사뿐하게 점프해야 한다.

/코메디닷컴



# WHO "앞으로 몇 주안에 유럽 인구 절반 오미크론 감염될 것"

세계보건기구(WHO)가 유럽 인구의 절반이 앞으로 6~8주 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스 클루게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장은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가 급증한 데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며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해일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예측은 2022년 첫 주 유럽 지역에서 보고된 700만 건의 확진자 발생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다.

확진자 수는 최근 2주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클루게 소장은 이날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은 지난해 델타 감염 급증에 이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해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향후 6~8주 안에 이 지역 인구의 50%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바이러스가 서구에서 발칸반도로 퍼지면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클루게 소장은 또한 "현재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역학적 상황, 가용 자원, 백신접종 현황,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이전 코로나19 변이보다는 증세가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돌파감염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나면서 각국 보건 시스템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영국에선 추가적으로 확진자 14만2224명, 사망자 77명이 나왔다. 여러 병원들이 코로나19 부담 증가와 의료진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도 1월은 의료진에겐 힘든 달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델타변이 감염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 오미크론 감염 환자들은 일반 병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동유럽의 경우, 폴란드에서는 팬데믹 이후 10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폴란드는 현재 코로나19 사망률이 세계에서 6번째로



EUROPA PRESS NEWS/GETTY IMAGES

높으며, 인구의 약 40%가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의 보건위생검역당국인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의 안나 포포바 청장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없으면 하루 10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해 11월 초 4만133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포바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현재까지 305건이나 발견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자 31만1281명, 확진자 1050만 명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 10일 화이자사는 오는 3월 오미크론용 백신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 백신의 필요성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BBC코리아

## 경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칙이 설정되었다. 본래 이 규칙의 취지는 각 팀들이 상대팀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단점이 극대화할 수 있는 고난도의 기술을 경쟁팀에 제시하고 경쟁팀은 상대편이 제시한 어려운 기술을 돌파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혹은 비록 이 프로그램이 댄스 오디션이지만 서로를 동료로 인식하고 상대편 팀이 돋보일 수 있는 춤을 제공하여 결국 두 팀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아름다운 경쟁을 의도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목적인 바와 달리 참가팀은 다른 경쟁팀에게 막춤으로 보일 수준의 장난스러운 안무를 상대편에게 요구하였다. 결국 이 팀은 1:1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시청자들은 이 팀의 경연태도에 대하여 비매너라고 비난을 퍼부었고 결국 승리한 팀의 팀원들은 SNS 계정을 닫거나 비활성화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연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성인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아직 그 심성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성숙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과도하게 흥분하고 과잉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성인인 마스터들은 이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문제가 된 팀을 교육했던 마스터는 그들의 행동은 승리를 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 프로그램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두 팀의 경연이 끝나고 승리한 팀을 선정할 때 다른 마스터들도 문제가 된 행동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보다 댄스 실력이 우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된 행동을 한 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들이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지하지원은 적고 인적자원은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어쩌면 경쟁은 필수적일지 모른

최근 모 케이블방송에서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댄스로 경쟁을 하는 오디션이 열리고 있다. 물론 참가한 수십 팀 중에서 오직 한 팀만이 우승을 거머쥘 수 있다. 이러한 경쟁구도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구도이지만 최근 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경쟁의 방법에 대한 논

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생존한 총 12개의 팀이 1대1로 대결하면서, 한 곡을 A구간과 B구간으로 나눠 각각의 팀이 자신만의 기량을 맘껏 선보이는 것인데 이 가운데 상대편이 창작한 안무를 수정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댄스 트레이드'라는 규

**GOLDEN TOUR** 사무실 이전

**골든투어 카자흐스탄**

Since 1998

- 한국 비자 접수 대행
- 항공권 예약 및 발권
- 한국 의료 투어 상담 환영
- 현지 투어 가이드 진행
- 그룹 및 개인 한국 투어 상담
- 누르타우 골프장 쿠폰 판매

취백줄리 76번지  
8(701) 711 4894(한)  
8(701) 368 0100(러)

다.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은 대학교 입학부터 취업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많은 경쟁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언젠가부터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고 단지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즉,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며 약점을 잡는 약간은 비열해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결국 승리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결과에만 치중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친구나 동료가 아닌 단지 경쟁자이자 이겨야 할 존재로만 여겨지게 되었다.

/코메디닷컴

## 이모네 게스트 하우스 · 한정식당

- 단체(50, 10, 8인석 등), 비즈니스룸 완비
- 한정식, 중식 런치
- 김치, 깍두기 등 산업체 납품 가능한 시설: 반찬 사전 주문 가능
- 게스트 하우스(유학생 장기 투숙 환영)

**위치:**  
카작빌을  
미시날리예바

**+7 727 299 1147 / +7 707 494 6190**

### 직영 농장 운영

(식재재 납품 가능)

### 신선채소

### 반찬류

### 김치류 공급

SINCE 1990 **다함께 좋은 세상 두레** Du-Re Mart

“배달가능”

한국식품과 공산품 일체, 각종 떡과 신선육 (도/소매 상담 환영)

• 넉넉한 주차공간, 고전 인테리어와 미로식 쇼핑동선, 항상 정감 있는 그곳!!

• 각종 떡, 신선육, 한국식품과 공산품 일체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9시(주일은 쉽니다)**  
**주소: 알파라비 자마카예바 24**  
**263-2291 / 8(771)852-6914**

카자흐스탄총판

## 7(세븐) Mart

\*주일은 쉽니다(2019년부터)

면류

장류

식품  
(냉동포함)

생활 · 주방용품 · 기타

아흐메토바 1번지(간도사바-사이나)

8(727)263 9969 · 8(701)907 4639 · 8(701)204 3488

농심

# navien

ЭКСКЛЮЗИВНЫЙ ДИСТРИБЬЮТОР  
ПРОИЗВОДИТЕЛЬ КОТЛОВ №1 в Корее  
КОТЛЫ ОТОПЛЕНИЯ от 100кв.м² до 4000кв.м²

ГАРАНТИЯ  
КАЧЕСТВО  
СЕРВИС

Отдел продаж:  
050019, РК, Алматы, ул. Чаплина  
(ул. ул. Халиуллина), д.71/66  
Тел.: 8 (727) 234-42-87, 243-69-83  
Mob.: 8-775-891-17-15  
sil\_o\_energy@mail.ru

Отдел продаж:  
050083, РК, Алматы  
мкр. Жетысу-1, д. 47  
Тел.: 8 (727) 376-82-75, 376-81-45  
Mob.: 8-775-890-71-78  
navien.kz

Заявки по сервису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одному номеру:  
Сервисный центр по ремонту и установке на гарантию NAVIEN в Алматы: 8 800 070 02 22  
звонок БЕСПЛАТНЫЙ с городского и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 한솔한의원

- ☑ 도침, 봉독, 사혈 및 물리치료
- ☑ 한약 및 보약탕전 처방
- ☑ 다이어트 한약 (식욕억제)
- ☑ 마사지 (15분, 30분, 60분, 90분)

이재원 원장 약력  
경희대학교 한의대 졸업,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과 석사.  
미국한의사 면허 소지, 전 인천 해광한의원 원장.  
홈페이지: www.hansolmed.kz

한의원 번호:  
+7 (700) 515 70 40  
+7 (727) 293 07 40

주소:  
잠블라 135  
(잠블라-무랏바예바)

택시 이용시  
'목적지'에  
**hansol** 입력

**진료: 월-금 8:00-18:00, 토 8:00-13:00 (점심시간 12:00-13:00)**

## 엔진오일 교환점

Kixx Korean No.1 Lubricants!  
High Quality and Reliable Products

8(705)573 7229(한국어)

엔진오일 / 미션오일 / 부동액 / 브레이크액 교환

#1 교환샵 / 잔도사바  
317-3370(러시아어)

#2 교환샵 / 따스닥  
+7 727 317 3525  
메르겐, 알레그

#1 교환샵 #2 교환샵  
잔도사바 따스닥  
스마트폰 어플로 위  
QR 코드를 스캔하면  
2GIS에서 위치 확인 가능

교민할인

## CIS Group

#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중앙아시아 허브교회

8(701)373-8821

# 알마티한인교회

새벽기도회 ▶ 화~토(06:00)

주일대예배 ▶ 12:30

어린이부예배 ▶ 12:30

청소년/청년부 ▶ 14:00

+77757054416  
(김광선)  
카톡: akckskim

## 법무 · 회계법인

- 회계 및 세무
  - 회계 가장 자문 및 대행
  - 회계 세무 실사
  - 통관 업무 대행
  - 내부 감사 업무 대행
- 기업 법무 자문 & 컨설팅
  - 현지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 및 청산 업무 대행
  - 현지 법인 법률 실사/ 법률 자문
  - 중재 및 소송 수행
  - 인허가 자문 및 대행 / 건설면허, 외국인 취업 허가 등 /
  - 영주권 신청에 대한 상담

주소: 바겐바이 바투라 150 (Богенбай батыра 150)  
'카담 인베스트' 비즈니스 센터 6층 6,7호  
8(727) 292 0018 · 8(727) 292 0028 · Kim Oleg 8(771) 300 2171  
E-mail: cisgroupkim@gmail.com, olegkk@mail.ru

# 2022년도 알마티 토요일 한글학교 교사모집

알마티 토요일 한글학교는 재외동포 교민 자녀들이 한국 교과과정에 따라 공부하는 주말학교입니다.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유치반도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칠 교사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 교사 지원 자격
  - 1) 대학 졸업자로서 교사의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
  - 2) 안정적인 비자를 취득한 자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최소 1년간 교사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
- 교사 채용 우선 선발 기준
  - 1) 한국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자
  - 2) 유치원, 초·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 3) 교육 관련 유경험자
  - 4) 어린이 미술지도 유경험자
  - 5) 경험은 없지만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많고 교사로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자
- 지원 학급 및 인원
 

학급	인원	비고
다문화 유치반	1명	러시아어 가능자 (초·중급)
초등부	2명	
- 학기일정
 

1학기	2022년 2월 5일 ~ 5월 21일 (토)	10:00 ~ 13:00
2학기	2022년 8월 27일 ~ 12월 10일 (토)	10:00 ~ 13:00
- 채용 방법 및 보수 관련: 이력서 제출 후 개별 면담
- 이력서 제출: mariakimkz@gmail.com (김영주 교장: +7 775 114 5460)
- 이력서 제출 마감일: 2022년 1월 1일

# 알마티한국교육원 2022 봄 학기 한국어강좌 온라인 접수 안내

1. 대상 및 접수 일시 :

◆ **신입생 및 그전에 공부했던 교육원 수강생 접수:** 2021년 12월 23일(목) ~ 12월 24일(금) (2일) 10:00~17:00

※ 등록은 선착순으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 2021년 가을학기 포기자(중도포기자 포함)는 2022년 봄 학기 한국어 강좌에 신청 불가

◆ **2021년 가을학기 수강생들만 접수:** 2021년 12월 27일(월) 10:00~17:00

2. 접수 방법:

**신입생 및 그전에 공부했던 교육원 수강생 접수**

◆ 접수 링크 누르기(12월 23일(목)-24일(금) 오전 10시 교육원 인스타그램 /VK/Facebook 에 공유) →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 → 사진 및 신분증 파일 업로드 → 제출 버튼 누르기

**2021년 가을학기 수강생들만 접수**

◆ 접수 링크 누르기(12월 27일(월) 오전 10시 교육원 인스타그램/VK/Facebook 에 공유) →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 → 사진 및 신분증 파일 업로드 → 제출 버튼 누르기

※ 정해진 시간 및 기간에만 접수 가능

3. 사진 준비: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가로 3.5 cm x 세로 4.5 cm, 200kb 이내의 여권 기준 사진 파일(JPG, PNG)을 미리 준비하여 등록 시 파일 업로드 해야 함 (사진을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바탕에 본인의 정면 얼굴 사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사진, 신분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접수가 취소

4. 대상 연령: 14세 이상(2008년 2월1일 이전 출생한 자)

5. 2022년 봄 학기 온라인으로 실시 할 예정

※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5개 학급정도 대면 수업 운영할 예정

6. 개설과정: 한국어강좌 초중고급 과정(Level 1 ~ 8)

7. 개설 반 요일과 시간:

◆ 평일 반 (주 2회) - Level 1~8

-월/수 또는 화/목:

1교시 10:00~11:20

2교시 14:30~15:50

3교시 16:30~17:50

4교시 19:00~20:20

◆ 주말 반 신규 개설(주 1회) - Level 1,2만 신청 가능

토요일:

1교시: 9:30~10:50/11:00~12:20

2교시: 14:00~15:20/15:30~16:50

3교시: 17:30~18:50/19:00~20:20

8. 변경 사항

-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으니 다른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운 자 또는 그전에 공부했던 교육원 수강생은 **Level 2 이상** 등록할 경우 **전 레벨 교육원 수료증 또는 TOPIK 1급 이상 성적표를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전 레벨 교육원 수료증 또는 TOPIK 성적표 없을 경우 레벨 1에만 등록 가능

9. TOPIK 급수별 지원 가능 기준

지원가능 레벨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레벨 6	레벨 7	레벨 8
TOPIK 급수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4급
및 접수 구간	(109~139)	(140~170)	(171~200)	(120~135)	(136~149)	(150~170)	(171~189)

10. 문의: 전화 +7 727 392 9120 홈페이지: www.koreacenter.or.kr

# Hannah E-Children Center

한나 영어 어린이 집; 내 아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

대상연령: 30개월~취학 전 어린이

**어린이 집 교육프로그램**

- 한국 어린이집 정규 교육과정 중심
- 영어교육
- 몬테소리 교육
- 생태 교육

**토요 STEAM 융합프로그램**

- 코딩
- 로봇교육
- 로봇코딩 등



**초중등**

- 화, 목 학습중심 방과후반 (국어, 수학, 논술, 주산암산 창의과학, 보드게임, 영재놀이)

• 교육 시간: 정규반 9시-3시/ 종일반 9시-5시 (개별 피아노, 유아체육, 발레 등) •

교육상담: 8707 700 8743(대표전화), 8705 710 7786 / 찾아오시는 길: '마르슬라-살라피나' 주변으로 이전

## 한식당

대형방켓 룸원비  
모든 메뉴 배달 가능  
편안한 주차공간  
한국에서 가져온 한우와 해산물

한국공산품 판매  
각종반찬과 식료품 판매  
위생적인 육류제품 판매

## 한국마트

274-0487  
8(777)012 7776  
잔도사바 27a

# 다사랑

늘푸른건강원 8(701)392 8880

## 방울토마토미용실

커트·퍼머·염색·메이크업  
얼굴&전신 마사지·피부관리·타투

예약 필수

일요일  
영업  
합니다

주소: 마나사 57번지  
8(701)335 3362/8(771)444 6641

## 알마티 부동산

▶ 아파트, 주택, 상가, 사무실 임대/매매 ◀

연락처: 8-701-063-3933 (KO)  
(RU)  
카톡 ID: Almatybds, 알마티부동산  
email: almatybds@gmail.com

## 스키(SKI) 동호회

스키/보드를 사랑하는  
교민, 유학생을 위한 모임

>> 침블락, 악블락 시즌모임 진행  
>> 초급자도 참여 가능  
>> 초/중급 무료 포인트 강습(비용없음)

문의: +7(702)908 0266 http://cafe.daum.kazakski

## 카자흐스탄알마티당구동호회

매달 3째주 당구대회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에게 문의해주세요.

연락처: 회장 최영석 8701-012-0008 총무 윤명식 87082225119

## 카자흐스탄 한인 축구 동우회

축구를 즐기고 FC KiK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Enjoy Football! Like FC KiK!!*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웨브첸까-자로까바(Olza Sports)  
+7 701 744 3633(오영교 회장) +7 701 784 9776(김선웅 총무)

## 천산 산악회 토요일 정기산행

집결시간: 매주 토요일 9시  
집결장소: 리츠 필라스 주차장  
산행장소: 천산 일대  
참석대상: 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  
문의: +7 778 200 30000

## 농구동호회

토요일  
오후 3시

농구를 좋아하는 모든분 환영!  
★실력은 집에 두고 열정만 가져오세요!★

대표: 박현기 +7775 257 2266 도움: 김상호 +7775 385 5062  
팀닥터: 이재원 원장 +7708 298 9258

## 카자흐스탄 다문화 가정 모임

- 카즈 다모 -

카자흐스탄 거주 다문화 가정의 소통과  
나눔에 관심있는 가정을 환영합니다.

진재정 회장: 8 701 711 4894 / 이경원 총무: 8 702 462 0089

## 스터디그룹

자기개발 학습동호회 "콩카루"

콩카루(Kor, Eng, Kaz, Rus)스터디그룹은 어학중심 자기개발 학습동호회입니다.

영성강의 시청, 공동학습, 학습자료 공유, 자율학습 | 카톡ID: 35151234 전화: 778-200-3000

**한식전문식당**  
8(727)269 6866  
숯불구이 전문/일요일 영업

**게스트 하우스**  
1인1실·사전예약필수

**장기 투숙시 할인 적용**  
+7 7013319158

**마트(MARKET)**  
8(727)269 6851  
생필품·식재료·공산품

Korean Restaurant  
**명가**

모든 메뉴와  
치킨 배달 가능

- 음식 주문시 마트물품 같이 배달 됨
- 배달요청: 8(701)331 9158



구글지도에서 **명가 한식당** 또는 2GIS에서 **Myeong Ga** 를 검색하세요

baganashil@hotmail.com



# 애플렌터카

내차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드라이브를 위한 곳

최고의 서비스  
차별화된 시스템  
고객 맞춤 감동서비스



렌트 및 상담전화

+7 727 393 2580(RU) • +7 701 111 3567  
+7 701 484 0267 • +7 777 686 9025

## Masisso 카페강남

관광, 예술, 문화의 중심지 아르뵈트 거리에 있는 마시소 카페강남은 연회 및 각종 행사가 가능하며 시원한 야외 Terrace와 Garden에서도 한식, 고려인식, 중식, 양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영업시간: 10AM~02AM

주소: 쥐백졸리 102a (Жибек Жолы 102ф)  
전화: 8-778-348-9666(Ru), 8-778-333-3701(한)

## Masisso 나자로바예바

한국식 인테리어(VIP Room), 정갈한 음식, 저렴한 가격  
추천메뉴: 삼겹살 또는 쇠고기 세트메뉴, 보신탕

영업시간: 12AM~24PM

주소: 나자로바예바 57 / пр. Назарбаева 57  
전화: +7-727-273-2457

## Masisso 시폴리나

깔끔한 인테리어로 새롭게 오픈한 마시소 시폴리나 넓은 주차장과 10인 단체석 준비완료

영업시간: 11AM~24PM

주소: 시폴리나 183a / ул. Сейфуллина 183a  
전화: +7-727-294-4056

## [중요 안전공지] 카자흐스탄 시위 관련 알마티 안전 공지

- o 정부의 테러 세력 진압이 진행 중이고 알마티 시내가 점차 안정을 찾고 있으나,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 o 외출 금지, 야간 조명 최소화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추가 문의 사항이나 시위 관련 피해 상황이 있을 경우 주 알마티 총영사관 사건사고 긴급전화(+7-777-705-66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알마티총영사관-

## [중요]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확인서 제출
- 2021.12.31(금) 주알마티총영사관

질병관리청은 2022.1.13부터 입국자(내,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기존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예) 2022.1.14. 10:00시 출발 항공편의 경우, 1.11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 확인서만 인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관 홈페이지에 첨부된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 알마티 총영사관 영사과 (+7-727-291-0490, 0449, 또는 almakorea2@mofa.or.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TGL KAZ Logistics

KOSDAQ 코스닥 상장 법인

Taewoong Logistics

## 유라시아 물류 강자 태웅로지스



국제화물운송서비스 내륙트럭운송서비스 3국간 운송 서비스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수출입통관서비스

사무실 주소: Block 2A, 502 Office, 5F "Nurly Tau", Business Center 5, Al Farabi Avenue 법안장: 한상운 HP) +7 701 012 2360 Email: sasha77@e-tgl.com

Адрес редакции : 050062, Казакстан, г.Алматы, мкр. I, д.73-Б, офис 23 тел.факс. 3929305 E-mail : haninshinmun@hotmail.com Homepage : www.kazkorean.kz

Выходит 2 раза в неделю Тираж 500 экз. Газета отпечатана в типографии АО "Алматы-Болашак" Адрес типографии : г.Алматы, ул.Муканова 223-Б.

тел.392 93 05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вязи и информации РК.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No 11069-Г от 19 августа 2010г. Газета

<Ханин Синмун> Собственник: ТОО <<Ханин Синмун>>(город Алматы)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Копесбаева Г.Е.